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대 마음

깨달음은 수행을 빌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자기 마음을 알면 자기의 본성을 보리니, 결코 달리 구하지 말라.

자기 성품을 보는 것은 수행을 가사하고 안하고 관계없다.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것을 믿어 헛된 노력을 내려놓을 줄 알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따로 뭔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여, 자꾸 찾아 나서는 분별망상의 병에 걸려있다. 알고 보면 마음은 너무 가깝게 있어서, 심거울 정도로 맛이 없다. 중생들은 고추장이라도 발라서 매운 맛을 보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아무 맛이 없으니 믿지를 못하는 것이다.

수불 스님의 안릉록 선해 (20)



범어사 주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떠나서,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황벽 스님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인심이라고 직지해주고 있다. 당장 지금 여기에서 작용하는 '이 마음'이 곧 성품이지, 달리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계합이 되어야지, 생각으로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죽시 어긋나고 만다.

만약 말하지 않고 작용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모양도 없고 또한 방위와 처소도 없다.

한 법도 만들어지기 이전의 본래 마음은 모양도 없고 방위와 처소도 없지만, 인연 따라 온갖 작용을 배풍다. 상(相)놀음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모양도 방소도 없는 것이 지금 말을 한다.'고 하면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근본 마음 하나가 인연 따라서 이렇게도 펼쳐지고 저렇게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들어가야 한다. 믿음에 성숙하면 계합되고, 계합되면 저절로 환히 드러나서, 불조의 모든 말이 다 소화가 된다. 그렇지 못하면, 무슨 말을 든든 하나도 소화하기가 힘들다. 이런 조사 어록을 읽고 소화가 안 되면, 스스로는 뜬 장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발심하여야 한다. 그저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 간절함을 더해가다 보면, 어느새 머구름이 걷히고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난다. 그때는 조사의 말씀이 화살촉끼리 들어맞듯 내 마음에 흔연히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저 한결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서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사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참 성품이 마음평(心地)에 감추어져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 부른다.'

알고 보면 마음은 너무 가깝게 있어서, 심거울 정도로 맛이 없다. 중생들은 아무 맛이 없으니 믿지를 못하는 것이다.

깨달음은 본래 없지만,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의심이 한 덩어리가 되면 스스로 터져나가는 선지식에게 물었을 때 언하에 대오하던 기연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림 · 박구원

이 계승은 서천 제26조 불여밀다(不如密多)의 전법계이다. 마음자리에는 본래 지혜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다. 마음이라 하는 말도 억지로 붙인 말이지, 실제 마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 모습 없는 모습을 억지로 이름 붙여서 마음이라고 한 것이다.

한편 우리가 지금 인연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런 가르침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근거를 잡들여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자칫 이런 말과 이치를 배우고 이해하여 걸림이 되는 것을 극히 경계해야 한다. 불법을 배워 조금 알게 되면 흔히,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마음 아닌 것이 없다 하면서, '마음 깨달으라.' 함은 또 무슨 말인가? 마음을 너도 가지고 쓰고 있고 나도 가지고 쓰고 있고,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늙은이든이나 이제 세상에 갓 태어난 꼬마들이나 다 마음 가지고 쓰는 거지 다른 마음이 따로 있나? 이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이 마음이지, 무슨 마음 또 깨달으라고 '깨달아라, 말라' 하나? 다 허망한 소리 아닌가?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면 그대로 알고 쓰면 그만이지." 하면서 머리로 다 끝내버린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알음알이로 시비를 하면서도, 뭔가 양심상 '아직 내가 마음을 깨닫지 못했잖나?' 하는 짝짝한 게 딱 자리하고 있다. 머리로는 다 안 것 같아도, 가슴에서 흔쾌하지 않다면 틀림없이 견해의 장에 속에 있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오히려 깊은 병이 되어, 여우같이 자기 폐에 속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땐 선지식 앞에 나아가 지남을 받아서, 참다운 의심 속에 사무쳐 들어가야 한다. 그 의심이 익어 의정이 되고

의단이 되면, 시절인연 따라 묻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탁 터지는 날이 온다. 그때는 "아!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내말에 속아서 스스로 발등 짚는지도 모르고 내가 다 안다고 자만했구나. 늘 머리만 굴리며 이치에 나가떨어져서 실재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 래 가지고는 품엔들 깨달을 수 있었겠나? 깨달음은 본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지고 쓰고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마음을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는 천지현격의 차이가 있다. 만일 이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한 조사들이 시설해놓은 장치 속에 나아가 한바탕 정신의 벽을 뚫고 나와야 비로소 걸림 없이 이 마음을 자유자재로 쓰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전에는 늘 구름 낀 것처럼 안개 서린 것처럼, 갑갑한 것이 마음 한쪽 끝에 있었지만, 깨닫고 보면 구름이 끼나 안 끼나 그만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허공은 구름이 끼고 안 끼고 상관없이 늘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이 마음도 알고 보면 하루 종일 분주히 온갖 일을 하면서도 여유하고 부동하여 일한 바가 도무지 없는 것이다.

다만 모르는 그 일 하나를 의심하는 게 귀하다. 그 의심이 한 덩어리가 되면, 경우 따라 스스로 터져나간 선지식에게 물었을 때 언하에 대오한다든지 하는 기연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명안중사를 찾아서 자세히 점검받고 다음 일을 기억해나가야 한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보살은 모든 중생의 불청지사(不請之師)이다.

(무량의경(無量義經))

거리로 나가는 스승

이 <무량의경>에서는 '스승'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지만, 다른 경전들에서는 '벗'이라고 부르는 말이다. 불청지사가 곧 불청지우(不請之友)이고, 불청지우가 곧 불청지사다. 스승이 벗이고, 벗이 곧 스승이기 때문이다.

오늘 생각해 보는 이 구절의 바로 앞에는 "보살은 모든 중생의 참다운 선지식이다"라는 말도 나온다. 그 선지식이라는 말은 스승을 일컫는 말이지만, 동시에 선우(善友)라고도 번역된다. 이렇게 스승과 벗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승은 제자에게 벗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명색이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권위주의에 대한 경계를 '불청지사'라는 말은 담고 있는 것 아닐까.

사회복지의 기본원리

'불청지사'라는 말에 '스승'이라는 개념이 있으므로, 우선 스승과 제자, 법을 전해 주려는 보살(표교사)과 법을 전해 받는 중생(대중)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거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은 재물을 나누는 보시에도 적용가능하다.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고서야 재물을 나누어 준다면 이미 늦다. 그것은 진정한 보시라고 할 수 없다. 청함을 받기 전에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보시이다. 진정한 보시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자리 위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동부 도시 화련(花蓮)의 어느 병원에서 원주님 임산부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젊은 비구님 스님이 있



그림 · 박구원

벗이 될 때, 비로소 그 스승은 제자와 동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행은 앞에서 이끄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아니다. 나란히 서서 함께 걸어간다. 사제동행(師弟同行)이라는 말이 그 뜻이다.

제자로부터 "스승님, 저랑 함께 나란히 걸어가시죠", "스승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소서"라고 청탁을 받을 때는 이미 늦다. 청탁을 받고 나서야, 제자에게 다가가는 스승이라면 '불청지사'라 할 수는 없다. 청탁을 받지 않더라도, 늘 살피고 있다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말하지 않더라도, 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탁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그분이 참 스승이다. 우리 부처님은 중생들로부터 "법을 설해주소서"라는 청탁을 받지 않으셨다. 그 전에 스스로 녹아원으로 길을 떠나셨던 것이다.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게는 영원한 전범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날 우리는 어떤가?

청탁받기 전에, 청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중생을 찾아가고 있는가? 혹시나 거룩한 법석(法席)을 장만해 놓고, "여기 오셔서 법을 설해주소서"라고 누군가 청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그럴 때 가서 법을 설하는 것만으로 표교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무대가 마련되기 전에 "거리 (=중생이 있는 곳)로 나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고 있는가?"

었다. 그 원주님 임산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당시 그 원주님 임산부는 그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참상(慘狀)을 목도한 스님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자비심을 일으켰다. 그리고서는 "돈이 없어서 의료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서는, 구제활동에 뛰어든다.

자제공덕회의 정엄(證嚴)스님 이야기다. 지금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구호 활동 등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단체이지만, 처음 시작은 그렇게 발단된 것이다. 2011년 자제공덕회 견학을 갔을 때, 나는 스님께서 강설(講說)하신 <무량의경>을 발견했다.

<무량의경>을 통해서, 스님은 자제공덕회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정신무장을 하고 계셨다. "청하기 전에 다가가자"라고 말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사찰법당앰프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외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문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